

누가복음 22  
Tape #C2540  
By Chuck Smith

Luke's gospel, chapter 22.

*Now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drew nigh, which is called the passover (22:1).*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ctually was for six days, from the fifteenth of Nisan to the twenty-first. However, the fifteenth of Nisan was the day of the Passover. And so it was drawing nigh. People were beginning to prepare for it. Two days before the feast they would go through the house with brooms and brushes and make sure that they got rid of all of the leaven out of the house, in quite a ceremony. And of course, they would always leave a little bit of leaven for one of the children to find, in order that they could find the last bit of leaven that was there. And they would purge the house of leaven in preparation for the Passover. And so this time was drawing close.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22:1).*

무교절은 실제로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일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니산월 15일이 무교절이었으며 그 절기가 가까워 왔습니다. 사람들은 무교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교절 이틀전에 그들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 집안을 샅샅이 청소합니다. 물론, 항상 조금의 누룩을 남겨 놓아 한 아이로 마지막 조각의 누룩을 찾게합니다. 그런다음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집안의 누룩을 다 치워 깨끗하게합니다.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ought how they might kill Jesus; but they feared the people. Then Satan entered into Judas surnamed Iscariot, being of the number of the twelve. And he went his way, and communed with the chief priests and the captains, how he might betray him unto them. And they were glad, and covenanted to give him money. And he promised, and sought opportunity to betray him unto them in the absence of the multitude (22:2-6).*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22:2-6).

So it was their desire to catch Jesus away from the multitudes. Because, as we noticed last week in our study, the crowds were coming to hear Him in the temple daily as He was teaching, and many counted Him to be a prophet. And so, though the scribes and the high priests and all were wanting to move against Jesus, they were too cowardly to move against the popular movement of the crowd that was being attracted to Jesus at this point. And so when Judas came to them, they were very happy, actually, that they might have this opportunity of catching Jesus away from the crowd, arresting Him and getting the movement going the other direction before the people would really realize what was happening.

군중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예수를 잡는것이 그들의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본대로 그가 성전에서 가르칠때 무리들이 매일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으며 그를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대 제사장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반대하는 운동을 할수있을 정도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그들에게 왔을때 실제로 그들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기전에 군중에게서 떨어져있는 예수를 잡아 그를 체포하며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운동을 일으킬 기회를 잡을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Judas Iscariot is, of course, a very interesting character. We are not really told too much about him. As we get into John's gospel, we'll learn that he was actually the treasurer of the group. And according to John, had been pilfering out of the group treasury. Here we are told that Satan entered into him. He is called the Son of Perdition by Peter. And Jesus said of him, "It would have been good for that man if he had never been born." A tragic life. A man who became obsessed by the greed, the desire for power. And there are many suggestions as to the motives behind Judas' betrayal of Jesus.

가룟 유다는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에 관해 들은 바가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그는 그룹의 재정담당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그는 그룹의 돈주머니에서 좀도둑질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 관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세계 좋을뻔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 잡힌 사람 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동기에 관하여 많은 제안이 있습니다.

There are those who suggest that he was only trying to force Jesus to establish the kingdom. And that he felt by betraying Him and turning Him over to the Jews, it would force the hand of Jesus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wait any longer, but would have to manifest who He was and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And that when Jesus was not defending Himself, but was submitting to the edict of death, that his plan more or less backfired, and that's when he came to the priests bringing the money back and throwing it at their feet. Who knows what the true motive of a man is? These are only speculations by men who have perhaps tried to somehow excuse in a way the actions of Judas Iscariot. I personally feel that his actions are inexcusable. The method by which he chose to betray the Lord with a kiss is reprehensible.

그가 예수로 하여금 왕국을 빨리 세우도록 독촉한것뿐이라고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배반하여 저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줌으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하여 그의 손을 쓰도록 해서 그가 누구인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유다는 느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죽음의 판결을 따라서 그 계획이 무너졌을때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돈을 도로 가져와서 그것을 그들의 발아래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누가 압니까? 이런것들은 어떤 면에서 유다의 행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주려는 사람들에게 의한 추측일 뿐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의 행위는 용서 받을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가 주님을 배반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인 주님과 의 입맞춤은 비난받을 것입니다.

Now, verse 7: The Day, or the Preparation of the Passover, has come.

*Now the day came of unleavened bread, when the passover must be killed (22:7).*

The Passover was a Sabbath day in which they were to do no work; it was a feast day. And this day had come in which they were to kill the lamb for the Passover dinner. All of the cooking, all of the baking, all of the preparation had to be done before sundown. It is important that we recall that the Jewish day begins at six o'clock in the evening. So all of the preparation had to be made for the Passover dinner before six o'clock in the evening. And to them, the day began, the day of Passover began at six o'clock in the evening and did not end until the following day at six o'clock in the evening.

유월절은 안식일이었고 축제일이었으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엔 유월절 만찬을 위해 양을 죽이는 날입니다. 모든 요리와 빵을 굽는일과 모든 준비를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여섯시부터 시작 된다는것을 기억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위한 모든 준비가 저녁 6 시 전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이 저녁 6 시에 시작되었으며 그 다음날 6 시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Now, by the end of the following day, Jesus had been crucified, which means that Jesus was crucified on the day of the Passover Feast, which began at six o'clock the evening before when He celebrated the feast with His disciples. But He was crucified on the day of Passover. Which, of course, is extremely significant when you remember that the Passover was a memorial feast to remind them of how God had delivered their fathers from the plague of death in Egypt when they followed the instructions of God and had slain the lamb and put the blood on the lintel in the doorpost of their house. So that when the Lord passed through Egypt that night, when He saw the blood upon the doors of their houses, He passed over those houses; hence the word *passover*. He had passed over those houses and the firstborn was saved alive, because of the sacrificial lamb, the lamb for the house.

그 이튿날이 끝날때 예수께서는 십자가 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 축제일 전날 저녁 여섯시에 만찬을 시작하셨고 그는 유월절 축제일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집트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을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사망의 재앙에서 건져주신것을 되새기는 기념 잔치인것을 생각할때 그것은 대단히 의미있는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셨으며 유월 (passover) 이란 용어가 생겼습니다. 주께서 희생 된 양으로 인하여 그 집들을 지나가셨으므로 장자들의 생명이 보존 되었습니다.

That was only to look forward to the Lamb of God that would one day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Our sacrificial Lamb, who by His death, by His sacrifice, has spared us from death. And so this Passover feast that the Jews observed was looking back, but it was also looking forward. And it had its fulfillment in Jesus. Paul, in writing to the Colossian church about the Sabbath days, about the new moons, the holy days...and of course, the Passover was related to the new moon...in talking to them about these, he said, "These were all a shadow of things to come, but the substance is of Christ" (Colossians 2:17).

그것은 오로지 앞으로 있을 어느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양은 그의 죽으심, 즉 그의 희생 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은 과거를 돌아 보면서 지켰으나 또한 앞을 바라보며 지킨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안에서 성취 된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안식일과 새 달과 거룩한 날에 대하여 쓴 그의 편지에서 유월절은 새 달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것들에 대하여 말할때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7).

They were all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ir fulfillment in Jesus Christ. And so the Feast of the Passover was fulfilled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at very day, God's Lamb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The Feast of Pentecost was fulfilled fifty days later when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upon the church and 3,000 people were converted, the first fruits of what we see the continuing work today. As the Feast of Pentecost was the Feast of First Fruits, the offering of the first fruits unto the Lord.

그들은 진실로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질것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바로 그날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후 50 일이 차서 오순절이 되었을때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3,000 명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첫 열매와 우리가 보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Inasmuch as these two major feasts have their fulfillment in the New Testament and in the church, we would then conclude that that third feast, which was inaugurated by God in the Old Testament, the Feast of Trumpets, must also have a fulfillment within the church...that feast that looked back to God's delivering their fathers out of the ravages of the wilderness and bringing them into the promised land. And so its fulfillment is yet awaited by the church. "When the trumpet of God shall sound, and we who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ever be with our Lord" (I Thessalonians 4:17).

"And so came the Day of Unleavened Bread, when the Passover must be killed."

이 두 중요한 명절이 신약성경과 교회에서 성취되었으므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번째 명절, 즉 나팔절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구원하여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것을 회고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는 아직도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7).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22:7).

*And he sent Peter and John, saying, Go and prepare the passover for us, that we may eat. And they said unto him, Where do You want us to prepare it? And he said to them, Behold, when you enter the city, there you will find a man who will meet you, and he is bearing a pitcher of*

*water; follow him into the house where he goes. And you shall say to the goodman of the house, The Master says to thee, Where is the guest chamber, where I shall eat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And he shall show you a large upper room furnished: there make ready. And they went, and found as he had said unto them: and they made ready the passover. And when the hour was come, he sat down, and the twelve apostles with him. And he said unto them, With desire have I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for I say unto you, I will not eat any more thereof, until it be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And he took the cup, and he gave thanks, and he said, Take this, and divide it among yourselves: for I say unto you, I will not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shall come. And he took the bread, and he gave thanks, and he broke it, and he gave it un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And likewise also the cup after the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 (22:8-20).*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2:8-20).

And so Jesus, here, instituted what we call the Lord's Supper with His disciples, as He took the traditional Jewish Passover feast and gave to the emblems of that feast their true meaning. Now, they always had these three pieces of bread that they would put in these little sacks. The middle piece was broken, sort of a matzoh loaf, and it was broken. And Jesus broke it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was broken for you." And then, after dinner they always had the final cup. And when they were having this after dinner cup, Jesus sai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the remission of sins."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라 부르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가 전통적인 유대인의 유월절을 택하여 그 절기의 상징물들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세 조각의 떡을 조그마한 자루안에 넣습니다. 중간에 있는 떡은 깨어진것 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쪼갬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나서 저녁식사 후에는 항상 마지막 잔을 돕니다. 저녁 식사후에 잔을 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To study the traditional Jewish Passover feast, even as it is observed by them today, is extremely enlightening and extremely significant to us as Christians, because you can see in its symbolism Jesus Christ so clearly. You can see the gospel so clearly. Their hearts surely should have been prepared by it for the receiving of Jesus Christ. It's just woven into the traditions of the Passover feast. But to them, it was a memorial of God's deliverance in Egypt. From the time the child said, "What makes this night different from all other nights?" and the father begins to explain the story of God's delivering of their fathers out of the bondage of Egypt, with the various things around the table representing the bondage of Egypt and God's deliverance. Now a whole new meaning is given to it by Jesus Christ, for it is now been fulfilled. And the bread now represents the broken body of Jesus, and the cup now represents His blood that was shed for our sins.

오늘 날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들의 전통적인 유월절을 공부하는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대단히 교육적이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징물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볼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분명히 깨달을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됩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전통속에 엮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애집트에서 하나님을 구출해 주신것을 기념하는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묻습니다 "오늘 저녁이 다른 날 저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상 주변에 놓인 애집트에서의 속박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여러가지 물건을 가지고 그들의 조상을 애집트의 속박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주어졌으며 그것이 성취된것입니다. 떡은 예수의 상한 몸을 상징하고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But, behold, [He said,] the hand of him that betrays me is with me on this table. And truly the Son of man goes, as it was determined: but woe unto that man by whom He is betrayed! (22:21-22)*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knew who it was that was going to betray Him. Here He is just giving a solemn warning. I think that with this solemn warning, Judas still had a chance to back out if he wanted to.

*And they began to inquire among themselves, which of them it was that should do this thing. And there was also a strife among them, of which of them should be accounted the greatest (22:23-24).*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2:21-22).*

성경은 누가 예수를 배반할것을 주께서 아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주께서 엄숙한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엄숙한 경고로 유다가 자신만 원했다면 아직까지 돌아설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2:23-24).*

It's sort of sad, sort of pathetic...here Jesus is filled with the knowledge that He is soon going to be suffering on the cross. And He is saying, "Look, I've really wanted to eat this supper with you before I suffer. Now this bread is My body; it's going to be broken for you. This cup is My blood; it's going to be shed for the remission of sins. This is going to be God's new covenant." And He is really now sort of obsessed with the suffering and the cross. And the disciples are arguing among themselves as to which one is going to be the greatest when He establishes the kingdom.

그것은 슬프고도 애처러운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래지 않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길것이라. 이 잔은 내 피라. 죄 사함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 그리고 난후 그는 참으로 고통과 십자가로 인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께서 나라를 세울때 저희 사이에 누가 크게될것인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And so he said unto them, The kings of the Gentiles (22:25)*

And the word *Gentiles* in the New Testament is equivalent to *heathen*.



*they exercise lordship over their subjects; and they that exercise authority upon them are called benefactors (22:25).*

It hasn't changed much. The government today declares that they are our benefactors. They take away a hundred and then give you back one, declaring them to be your benefactors.

*But [He said,] it shall not be so among you: but he that is the greatest, let him be as the youngest; and he that is chief, as he that does serve. For whether is greater, he that sits at meat, or he that serves? Is not he that sits at meat? but I am one fro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22:26-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22:25),

신약성경의 이방인 (Gentiles) 은 야만인 (heathen) 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2:25).

변한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정부는 우리의 은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수백 불을 받아가서 몇 불만 돌려 주면서 그들이 우리의 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찌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찌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2:26-27).*

Jesus is teaching His disciples that the true path to greatness is the path of serving. Jesus said,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He also said in another place,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Too many ministers have the wrong concept of the ministry. They fail to see the servanthood of the ministry. They get to the place where they almost expect people to do special favors for them because they are the minister. But in reality, as a minister, it means that I am a servant, a servant to all. Now the Gentiles loved these positions of authority. They loved to rule over people. They loved dominion over people's lives. But Jesus said, "It shall not be among you. You need to learn to be servants."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참으로 위대하게 되는 길은 섬기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는 다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니라." 많은 목사들이 사역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에서 종의 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혜를 베풀기를 기대하는 위치에 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실상, 목사로서, 나는 종이며 모든 사람들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자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 하시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종이 되는것을 배워야 할지니라.”

"And then He said unto them,"

*You are those who have continued with me and my temptations. And I appoint you a kingdom, as my father has appointed unto me;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the kingdom, and sit on th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22:28–30).*

Now this He is saying to His twelve apostles; of course, excluding Judas Iscariot. But He is telling the apostles. And I think Paul actually is the one who got appointed to take the place of Judas, though the church drew straws and picked Mathias. That was the luck of the straws, but it would appear that it was God's choice that Paul was the twelfth. But the Lord is saying, and this to me is something that is glorious to contemplate,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nd sit on th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이것은 가룟 유다가 빠진 12 제자에게 말씀 하신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유다의 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비 뽑아 운이 좋았던 것이지만 바울이 12번째 제자가 되는것이 하나님이 원하셨 던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것을 생각 해보는것도 내겐 영광 스러운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And the Lord said, Simon, Simon, behold, Satan has desired to have you, that he may sift you as wheat: But I have prayed for thee, that thy faith fail not: and when thou art converted, strengthen your brothers (22:31–32).*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Simon. They say that he was large of physical stature. He was impulsive, lovable, just a big, strong, lovable guy. Because of his impulsiveness, getting into trouble, he would often speak up and say the first thing that came into his mind, right or wrong. And sometimes it was right and very good, and sometimes it was very wrong. But Jesus said of him, "Satan has desired to have you, that he might sift you as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 faith fail not." I believe that the prayer of Jesus was answered. I don't believe that the problem of Peter was the problem of faith. Oh, he failed as a witness. He denied his Lord, but there was never a failure of his

faith. He always believed in the Lord. "...and when you are converted, when you're turned, strengthen your brothers."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밭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22:31-32).

시몬에 관한 특별한것이 있습니다. 그는 체구가 컸다고 합니다. 그는 성미가 급하고 사랑스러우며 크고 기운이 좋고 사랑을 받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급한 성격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빈번히 생각 나는대로 옳건 그르건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한 말이 대단히 틀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사단이 밭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나는 예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증인으로서 실패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실패한적은 없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을 믿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And he said unto him, Lord, I am ready to go with thee, both into prison, and to death (22:33).*

Yes, Peter, we know.

*And he said, I tell thee, Peter, the cock shall not crow this day, before you shall have thrice denied that you even know Me. And then he said unto them, When I sent you out (22:34-35)*

Now, this is when He had sent them out into the ministry two by two.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22:33).

그래, 베드로야, 우리가 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22:34-35).

이것은 주께서 사역 하도록 두사람씩 내어 보내셨을때 입니다.

*I told you not to take a purse, not to take any script, not to take extra shoes, did you lack anything? And they said, Nothing, Lord. And he said unto them, But now, if you have a purse, take it, and likewise script: and he that has no sword, let him sell his garment, and buy one. For I say unto you, that this that is written must be accomplished in me, And he*

*was reckoned among the transgressors: for the things concerning me have an end (22:35–37).*

Jesus is saying, "Look, I sent you out before. I provided for you. But you're going to be going out soon again. I'm not going to be there this time. And things are going to be different; it's going to be tough. Before you were received, you're going to be rejected, you're going to be imprisoned, you're going to be hailed before the courts, you're going to have persecution. It's going to be hard."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겹옷을 팔아 살찌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W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22:35–37).*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보라, 내가 전에도 너희를 내어 보냈노라. 네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나아 갈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모든 상황이 다르고 좀 더 어려울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받아주기 전에 거절당하리라. 또한 너희를 옥에 가두리라. 법정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핍박을 받게 되리라. 어려워 지리라.”

*And they said, Lord, here are two swords. And he said unto them, It is enough (22:38).*

In other words, "You don't really understand, but you will." Jesus is not telling them to go out and make war against the world with swords, but He's just indicating the difficulty of that ministry that they are going to face after He has been taken away from them.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22:38).*

바꾸어 말하면, “너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엔 깨달을 거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밖에 나가서 칼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후 그들이 당면할 사역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Now, in verse 37 He said, "Those things must be accomplished in Me, which the scriptures declared." Jesus had absolute confidence in the prophecies, declaring, "They must be fulfilled." You can have that same absolute confidence in the word of prophecy. You can know that it must be fulfilled. Now, many times we make a mistake when we guess how it is going to be fulfilled. And a lot

of damage has been done to the subject of prophecy by men's guesswork. To try to guess just who the anti-christ is, is a dangerous and futile bit of speculation. We know that there shall arise an anti-christ. We don't know who he is. We know they're going to rebuild their temple. We don't know when or how. We know that th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They will be fulfilled. And Jesus had that confidence. And the scripture said, Isaiah 53, "He will be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This," He said, "has to be fulfilled."

이제 37절에서 그 분은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도 예언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을 당신은 압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실수하는것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추측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추측함으로 인해 예언의 주제가 많은 손상을 받았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일까 추측하는것은 위험하고 투기하는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사야서 53 장에서 말합니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것이라”는 “이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so he came out of the upper room, and he went, as he was accustomed to going to the Mount of Olives;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And when he was at the place, he said unto them, Pray that you enter not into temptation (22:39-40).*

Good prayer! Lord, help me not to enter into temptation.

*And he was withdrawn from them about a stone's cast, and he kneeled down, and prayed, and he said, Father, if thou b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And there appeared an angel unto him from heaven, strengthening him. And being in an agony he prayed more earnestly: and his sweat was as it wer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down to the ground. And when he rose up from prayer, and he was come to his disciples, he found them sleeping for sorrow, and he said unto them, Why sleep? rise and pray, lest ye enter into temptation (22:41-46).*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22:39-40).

주님, 홀르○하신 기도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않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22:41-46).

The prayer of Jesus is significant because Jesus is talking about redemption for man. "If it is possible." If what is possible? "If salvation for man is possible by anything other than the cross, let this cup pass from Me." That's basically what He was praying. That is why the cross of Jesus Christ offends many people today, because they say Christianity is too narrow. "All roads lead to God. It doesn't matter who you believe in, it's just important that you believe and have faith." But the cross of Jesus Christ declares that there is only one way to God and that is through the cross. If it is possible, if it were possible that man could be saved by being religious, the cross would be unnecessary. If you could be saved by keeping the law, the cross would be unnecessary.

예수의 기도는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무엇이 할만하시단 말입니까? "만일 인간을 위한 구원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가 하였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너무 좁다는것입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당신이 무얼 믿든지 상관 없어. 오로지 중요한것은 믿고 믿음을 가지는것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다고 선언 하십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즉 사람들이 종교인이 됨으로서 구원 받을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If you could be saved by being good, the cross would be unnecessary. The cross declares that there is only one way by which a man can have forgiveness of sins and approach God, and that is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and it declares a narrow one-way path. And that's why it offends a lot of people. And so the cross, the Bible says, is an offense to the Jews. To the Greeks, it's foolishness. But unto us who have been saved thereby,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So Jesus is praying about the cross, really asking the Father for a substitute way, if it is possible. And the fact that He went to the cross declares it was not possible. There's only one way by which man could be redeemed.

만일 선한 사람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을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수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을 거치는것이며 좁은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침이 된다고 합니다. 헬라인들 에게는 미련한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기도하시기를 진실로 가능하다면 대안을 주실것을 구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가신것이 다른 어떤 가능한길이 없다는것을 말해 줍니다. 인간이 구속함을 받는 길은 한길 밖에 없습니다..

*And while he was yet speaking to his disciples, behold a multitude, and he that was called Judas, one of the twelve, went before them, and he drew near to Jesus to kiss him. And Jesus said unto him, Judas, betrayest thou the Son of man with a kiss? When they which were about him saw what would follow, they said to him, Lord, shall we smite with a sword? (22:47-49)*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 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22:47-49).

The disciples had just awakened. Now there's a crowd there and they're getting ready to arrest Jesus. And the disciples are confused and they asked, "Lord, shall we smite with the sword?" He had just said, you know, "If you don't have a sword, sell your garment and get one."

제자들은 방금 잠에서 깨었습니다. 저쪽에 무리들이 예수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묻기를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것입니다. “만일 검이 없거든, 겹옷을 팔아 하나 살지어다.”

*And one of them (22:50)*

We are told in another gospel which one it was. And, of course, we could guess, couldn't we? Peter.

*smote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and cut off his right ear (22:50).*

He can be lucky Peter was sleepy. Peter would have had halved him.

*그 중에 한 사람이 (22:50)*

다른 복음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추측할수 있는건 그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22:50)

베드로가 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운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반쪽으로 만들뻔했습니다.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hat's enough. And he touched his ear, and healed him. Then Jesus sai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captains of the temple, and the elders, which had come to him, Are you come out, as against a thief with swords and staves? When I was daily with you in the temple, you did not stretch forth your hand against me: but this is your hour, the power of darkness (22:51-53).*

Oh, what a horrible hour in the history of mankind, when the power of darkness took over!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22:51-53).

오, 흑암의 권세가 차지하는 인류역사의 최악의 시간입니다.

*And they took him, and led him, and brought him to the high priest's house. And Peter followed afar off. And when they had kindled a fire in the middle of the hall, and they were sat down together, Peter sat down among them. But a certain maid beheld him as he sat by the fire, and earnestly looked upon him, and said, This man was also with him. And he denied him, saying, Woman, I don't know him. And after a little while another saw him, and said, Thou art also of them. And Peter said, Man, I am not. And about the space of an hour after another one confidently affirmed, saying, Of a truth this fellow was also with him; for he is a Galilean. And Peter said, Man,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nd immediately, while he yet spoke, the cock crew. And the Lord turned, and looked upon Peter.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 of the Lord, how he had said unto him, Before the cock crows, you will deny me thrice. And Peter went out, and wept bitterly (22:54-62).*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2:54-62).

"Lord, I'm ready to go to prison. I'm ready to die with You." Now, do not think that Peter was insincere. I believe with all of my heart that Peter meant that exactly; that in his heart he was ready to go to prison, he was ready to die for Jesus. Even as when we make our promises to the Lord, there is great sincerity. However, so many times when the showdown comes, we find ourselves with Peter, denying even in simple things. How is it that he denied his Lord? First of all, I think that we observe that he was sleeping when he ought to be praying. I think that that's one of the reasons behind his failure.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진실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베드로가 그 마음에 있는것을 정확하게 말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수를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약속을 할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베드로 같이 대단히 간단한 일에서도 부인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의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첫째로 내 생각에는 마땅히 기도해야할때 그가 잠을 자고 있는것을 봅니다. 나는 그것이 그가 실패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s it is a reason behind our failure, so often we are sleeping instead of praying. Secondly, he sought to follow the Lord afar off. That again is a dangerous place to be--trying to just be a fringe Christian, follow the Lord from afar. Not to make that deep total commitment, but just, "Oh, yes, I think it's great to go to church and that's fine and people should, you know." And then, he was warming himself at the enemies' fire, another dangerous thing. The result is denial. Now, how did Jesus look at Peter? I do not think it was a... "Peter, how could you?" look. Nor do I think it was a... "I told you so!" look.

우리의 실패의 배후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빈번히 기도하기 보다는 잠을 자는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히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위험한것은 -

변두리 크리스찬이 되는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것입니다. 깊숙하게 전적으로 맡기는것이 아니라 그저 “오, 그래, 교회 가는것은 좋은 것이야, 그게 좋다는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위험한 일은 적군의 불을 쫓여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것입니다. 그결과로 부인하게 되는것 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어떤 표정으로 보셨을까요? 내 생각엔 주님이 “베드로야, 어떻게 그럴수가 있니?”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내가 네게 말했잖아” 라는 표정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Someone came up to me this morning, and they had been in the fellowship hall where you get a close-up. And they noticed this spot on my head. And they said, "Tell your wife to be more gentle with you." And I said, "Would you believe that I bumped it on a cupboard door in the kitchen?" I was messing around in the kitchen and I had left the upper cupboard door open slightly and, you know, wasn't looking or paying attention and "whamo!" And here I saw that skin and flesh on the corner of the door. And my dear wife, when she saw my head, said, "I've told you to close those doors!" Oh, the sympathy I get.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펠로우십 홀에 있다가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될때에 내 머리에 점이 하나 있는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하라고 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부엌에 가서 위에 있는 찬장문을 열다가 부딪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부엌에 가서 이것 저것하다가 위에 있는 찬장문을 살짝 열어놓았는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가다가 “아이쿠!” 그래서 내가 보니 문 한쪽에 살점이 붙어 있더라구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머리 다친것을 보고 하는말이 “내가 찬장문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받는 동정이었습니다.

I think that the look that Jesus gave Peter was, "Peter, I understand. I understand, Peter. I love you still, Peter." I think it was a look of love; perhaps the deepest love that Peter had ever observed in one's eyes. The understanding of Jesus. More or less, "That's alright, Peter. I understand." And that's what broke Peter's heart. The Bible said, "Don't you realize that it is the goodness of God that brings man to repentance?" You know, if a person comes down really hard on you, your tendency is to defend yourself, to stiffen, to justify your actions. But when a person comes and puts their arm around you, and you say, "Ah," they say, "I understand and I'm praying for you. And I love you brother." Hey, that breaks you up. You know, you have no defenses against that. It melts you. And I think that's exactly how Jesus looked at Peter. "Peter, I love you. I understand, Peter, that's okay."

내 생각엔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 보셨을 때의 표정은 “베드로야, 내가 안다. 너의 입장을 이해해.” 그것은 사랑하는 표정이었고 베드로가 사람의 눈에서 관찰 해 온중 아마 가장 깊은 사랑을 담은 표정이었을것입니다. 예수님의 이해, 그것은 거의

“베드로야, 꿩꿩하다. 내가 다 이해한다” 는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정말로 심하게 다구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방어하고 굳어지며 정당화하는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팔로 안고 하는 말이 “네 사정을 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사랑해” 라고 하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녹일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녹일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표정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해하고 있어, 꿩꿩하다.”

"And Peter went out and he wept bitterly." Failure! "God, must I always be a failure?" "No, Peter, not always. In a few days you're going to receive power and you're going to be the witness God wants you to be." We'll get to that in the twenty-fourth chapter.

*And the men that held Jesus mocked him, and smote him. And when they had blindfolded him (22:63-64),*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실패! “하나님, 왜 나는 항상 실패만 해야 합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항상아 아니야. 몇날이 못되어 네가 능력을 받고 네가 원하는 증인이 될거야.” 우리가 24 장에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22:63-64).*

A very cruel thing to do! Because the body is marvelously constructed so that when we can see a blow coming, there is that natural reflex action of the body of a movement with a blow that cushions the blow. The body is marvelously coordinated and we have marvelous reflex capacities. The quarterback is injured when he's blindsided. You see these big three hundred pound guards coming in and throwing their shoulder in and knocking him to the ground, and another guy pouncing on him. And he bounces up and gets back into the huddle. When they get hurt is when he gets blindsided. He doesn't see it coming, he isn't able to roll with it, he isn't able to relax and roll with it; that's when you get hurt. You can jump off of a table and not hurt yourself, because you're expecting it, you're bracing for it and you're bending your knees and you're giving with it when you hit. And yet, you can step off of a curb and break your leg if you don't realize the curb is there.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놀랍게 지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강타가 오는지를 볼수있도록 충격이 올때 그 충격에 대한 자연적인 반사적 행동이 있습니다. 몸은 놀랍게 조절을하며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반사적인 작용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풋볼

코터백이 닳아 오는 충격을 보지 못할때 많이 다칩니다. 이 300 파운드나 되는 방어를 맡은 가드가 와서 그들의 어깨를 들이 대어 코타백을 땅에 떨어뜨릴때 또 다른 한 선수가 그 위에 너댓 없이 덮칩니다. 그는 튀어 올랐다가 마구 밀어눅습니다. 그들이 다치는것은 그들이 보지 못할때 일어 나는것 입니다. 그가 닳아오는것을 보지 못하여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반사적으로 돌리지 못해서 다치게 됩니다. 당신이 식탁에서 뛰어 내릴때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쥐고 무릎을 꾸부려 바닥에 닿을 때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자리 돌에 뛰어내리면 그것이 거기에 있는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Just that six inches can jar you so bad it can break an ankle, break a leg if you're not expecting it, if you're not coordinating for it. The same with a blow. If you're blindfolded and you can't see the blow coming, you're not able to move, you're not able to faint with it or move with it. And it hits you with its full force. And that hurts. And so, blindfolding Him and then beginning to hit Him, His face began to be disfigured, as these lumps began to rise. The eyes began to blacken and these huge lumps began to form from these blows. Isaiah tells us that His face was so beaten, so marred, that when they were through, you could not recognize Him as a human being. And he said, "We hid as it were our faces from Him." To look at Him was such a shocking thing; we couldn't stand to look. You just sort of cringed and closed your eyes and turned away. It's too horrible. You just can't look; you're shocked.

비록 6 인치 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당신의 발목뼈를 부러 뜨리거나 기대 하지 않고 조화를 잘 못맞추어 다리를 부러 뜨릴수도 있습니다. 강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만일 당신의 눈을 가리고 주먹이 날라 오는것을 보지 못하면 움직일수 없고 기절하거나 움직일수 없습니다. 그것은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가린후 때리기 시작했을때 그의 얼굴은 이그러졌고 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멍이 들었고 이렇게 맞음으로 인해 심히 부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얼굴이 너무 많아서 상하였기 때문에 그가 다 맞은후에는 사람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되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얼굴인 것처럼 그로부터 우리 자신을 감추었다" 고 합니다. 그를 바라 보는것은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서 그를 바라 볼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움츠리고 눈을 감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입니다. 바라볼수가 없으며 떨립니다.

"And they mocked Him,"

*saying, Prophecy, who is it that hit you? And many other things blasphemously spake they against him (22:64-65).*

As He said, "This is your hour; it is the power of darkness." And we see man at his worst.

*And as soon as it was day, the elders of the people and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came together, and they led him into their council, saying, Art thou the Christ? (22:66-67)*

“저희들이 그를 회롱했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욱하더라 (64-65).*

그가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세력이니라” 고 말씀하셨으며 인간의 최악의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이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6-67).*

You see, it was not lawful for them to assemble until daylight. And so they held Him. And as soon as it was day, they gathered into their chambers and they said, "Art Thou the Messiah? Tell us."

*And he said unto them, If I told you, you wouldn't believe: And if I ask you, you'll not answer me, or let me go. Hereafter shall the Son of man sit on the right hand of the power of God. Then said they all, Are you then the Son of God? And he said unto them, You said it. And they said, What need we for any further witness? we ourselves have heard it out of his own mouth (22:67-71).*

낮이 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저희들은 그를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자마자 그들은 공회를 소집했고 문초하여 묻기를 “네가 메시야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22:67-71).*